

#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제4장의 본질-존재함(esse) 구별 논증의 출발점에 대한 해석의 문제

이경재 (연세대 철학연구소)

<b>주제분 류</b>	서양중세철학, 형이상학, 존재론
<b>주요 어</b>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 존재함, 본질, 실제적 구별
<b>요약 문</b>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중심에 자리한 본질과 존재함(esse)의 실제적 구별(distinctio realis) 문제에서 관건은 양자의 ‘다름’의 확보가 아니다. 그 다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문제다.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제4장의 논증에 대한 해석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전개된다. 이 텍스트는 본질과 존재함의 개념적 구별을 넘어서서 실제적 구별을 확립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논의의 주요 대상이다.

이 논문은 주어진 텍스트가 실제적 구별을 확보한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 이는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이 텍스트가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확보되는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하되 후속 논의를 통해 실제적 구별에 도달한다는 오웬스와 위펠의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 텍스트가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한다는 이들의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후자의 입장은 다시금 제시하는 비판의 이유와 대안에 따라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논증의 출발점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통해 획득한 사물의 존재함이라고 주장하는 맥도날드의 견해가 그 하나이고, 본질은 실제의 질서와 사유의 질서를 매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 텍스트는 사유의 질서에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실제질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빅의 견해이다.

## 1. 서론

13세기의 스콜라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의 사상은 전방위적 성격을 지닌다. 신-세계-인간이라는 전통적 사변의 세 축,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즉 신과 세계, 신과 인간, 세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로 통합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두를 관통하면서 지배하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이해의 핵심에는 소위 본질(essentia)과 존재함(esse)의 실제적 구별(distinctio realis)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구별에 대한 온전하고도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연구의 첫 단계로서, 그 대표적 출처로 일컬어지는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의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려 한다.<sup>1)</sup> 이를 통해 본질-존재함 구별의 문제에 매개되어 있는 철학적 함의

를 드러내고, 이 문제의 해결이 어떤 지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함으로써, 본질과 존재함이 존재의 두 내적 구성원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이해의 핵심에 접근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본질-존재함 구별 문제의 중요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내용상 특징을 언급할 때 종종 그만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존재이해가 거론되곤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존재이해가 자칫 실재와 유리된 그만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창출하고 표현한 것처럼 이해될 위험이 있다. 그의 존재이해는 분명 기존의 철학적 개념들에 비해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존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도구인 철학적 개념과 원리의 측면에서의 새로움으로서 존재이해의 새 지평을 연 것이지 존재의 새 지평을 연 것은 아니다. 그의 존재개념은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어 고안된 인위적 개념장치 같은 것이 아니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이해의 가장 큰 특징은 탐구의 모든 대상과 영역이 그 다양성과 다면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존재’라는 공통성을 필연적 배경으로 한다는 경험적 진리를 적극 인정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성언화한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존재이해는 발명이나 창작이 아니라 발견이다. 그가 보여준 탁월함은 존재이해를 위한 정교한 도구와 개념을 인위적으로 고안해 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본’ 그의 혜안에 있다.

그가 ‘알아본’ 것이란 한 마디로 존재의 원리로서의 ‘존재함’(esse)이다. 본질과 구별되면서 본질과 함께 존재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되, 오히려 본질에 앞서는 존재의 가장 현실적 원리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존재함이다. 존재(ens)는 본질(essentia)과 존재함(esse)<sup>2)</sup>이라는 두 내적 구성원리의 복합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이다. 존재의 질서에서 형상 혹은 본질 이외의 다른 최강자를 알지 못했던 것이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이고 보면, 본질에 대해 현실태에 있는 존재함(esse)이 존재의 가장 현실적 원리이자 완성이라면서 본질을 상대화하는 그의 주장은 분명 획기적이다.

흔히 실제적 구별(distinctio realis)이라 불리는 본질—존재함(esse) 구별 및 이와 관련된 논쟁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존재개념을 이해해 보려는 철학사의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다. ‘있음’의 원리 즉 어떤 것을 없지 않고 있게 하는 원리인 존재함(esse)과 ‘무엇임’의 원리 즉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저러한 것이게 하는 원리인 본질은

1)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 내에서 이 문제가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 발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으나, 최근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음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장건익, 「토마스 아퀴나스의 *De Ente et Essentia* 4장에 나타난 본질-존재 구별 논증의 성격과 의미」 『가톨릭철학』 제7호(2005), 386~419. 이 논문은 주어진 텍스트를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intellectus essentiae argument) 즉 IE논증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전개되어 있다. 한편 이 문제 전반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논문들 이외에 Francis A. Cunningham, *Essence and Existence in Thomism: a mental vs. the “real distinc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참조.

2)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이해의 핵심을 이루는 이 세 개념 즉 ‘존재(ens)-본질(essentia)-존재함(esse)’에 대해서는 한글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와는 달리 ens-esse를 각각 ‘유-존재’로 번역하여 ‘유는 본질과 존재의 복합’으로, 또는 ‘존재자-존재’로 번역하여 ‘존재자는 본질과 존재의 복합’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재세계의 구체적인 존재자를 구성하는 두 구성원리라는 것, 이 두 원리의 구별은 사유 상에서 개념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질서와 역할과 완성을 달리하는 실재세계의 실질적 원리로서 실제로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본질과 존재함은 가능태-현실태 관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존재함이 오히려 본질에 앞서는 현실성의 궁극적인 원리라는 것 등이 실제적 구별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지닌 실제적 구별의 확립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형이상학의 학적 대상(subjectum)으로 제시하는 공통존재(ens commune) 즉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실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는 존재<sup>3)</sup>의 구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을 존재로 이해하는 데서 성립하는 원초적 존재이해로부터 형이상학의 대상인 공통존재를 획득해 내는 부정판단으로서의 분리(separatio)와 더불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이해를 접근하기 위한 두 축을 이룬다. 분리가 공통존재를 획득하기 위해 원초적 존재이해로부터 존재의 이유(ratio entis)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공통존재를 획득해 내는 과정이라면, 실제적 구별의 확보는 존재의 이유에 포함되는 내용들 즉 존재의 내적이고 필연적인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의 과정이다.

물론 11세기의 아랍사상가인 아비첸나를 비롯하여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선구자들이 있다.<sup>4)</sup> 그러나 앞서의 사상가들이 본질과 존재함의 다름에 대한 지적을 암시하거나 지시하는데 머물렀다면, 서로 다름이 주장되는 본질과 존재함을 존재의 형이상학적인 두 원리로 완성시킨 것은 그의 손에 의해서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질-존재함의 문제와 관련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여주는 탁월성은 양자의 구별 자체에 있다기보다 존재이해라는 보다 궁극적인 안목 하에서 본질-존재함의 관계를 드러내고 규명한데 있다. 실제로 그의 저작 안에서 본질-존재함 구별은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존재의 이해를 비롯하여 연관된 여러 철학적 문제들의 해법을 논증하는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본질-존재함 구별이 하나의 독립된 철학적 논점으로 제기되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사상가들에 의해서다.<sup>6)</sup> 이들은 이 문제를 철학사의 전면에 부각시킨

---

3) 이에 비해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면서도 실재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념 자체만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사유 안의 존재(ens rationis)로서의 존재(ens)를 다루는 것이며, 이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논리학이라고 한다. 형이상학과 논리학은 외연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ens)를 다룬다는 데서 일치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며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역시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In IV Meta., lect 4, nn 573-574; In de Trin., q.6, a.1 참조.

4) E. Gilson, *Elements of Christian Philosophy* (Doubleday & Company, Inc., 1959), 128-129쪽; Kevin J. Caster, "The Distinction Between Being and Essence according to Boethius, Avicenna, and William of Auvergne" *Modern Schoolman* 73 (1996), 309-332쪽 참조.

5) 레오 스위니(Leo Sweeney)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초기 저작에 나타나는 본질-존재함 구별의 언급을 양자의 다름이 암시만 되는 경우, 다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 그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는 경우, 다름의 이유를 논증적으로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Leo Sweeney, "Existence/Essence in Thomas Aquinas's Early Writing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Association*, 37 (1963), 98-101쪽 참조.

6) 실제적 구별의 문제를 놓고 토마스 아퀴나스 생전에 이미 브라반트의 시게루스(Siger of Brabant, 1240?-1282?)에 의해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질-존재함의 구별에 관한 문제가 독립된 주요 논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사후, 에기디우스 로마누스(Giles of Rome, Aegidius Romanus, 1243-1316)와 겐트의 헨리쿠스(Henry of Ghent, 1217-1293) 사이의 논쟁에서 본격화되었다. 본질-존재함의 관계에 대한 중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John F. Wippel, "Essence and Existence" *Cambridge History of*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구별’의 논증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이 보여준 보다 큰 시야를 상실하고 실제적 구별의 온전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유한 존재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 논변들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본질-존재함 실제적 구별의 본래적 의미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는 ‘실제적 구별’에 의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본질-존재함 구별을 실제로 그가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셋째는 소위 본질과 존재함의 실제적 구별이라는 것에 의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상적인 출발점은 ‘실제적 구별’의 의미를 먼저 확보하는 첫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의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그가 본질-존재함의 구별을 어떤 식으로 논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초처럼 등장하는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De ente et essentia) 제4장의 다음 텍스트에 대한 여러 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자연스럽고 용이한 출발점이다.

본질 혹은 무엇임(quidditas)에 대한 이해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본질 외부에서 더해져서 본질과 복합을 이룬다. 왜냐하면 본질의 부분인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본질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본질 혹은 무엇임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없이 없이도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 혹은 불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모르는 채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함이 본질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sup>7)</sup>

이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 본질-존재함의 구별을 상당히 명쾌하게 드러내는 완결된 텍스트로 여겨질 만큼 명료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이견들이 제출되었다. 다소 의외이거나 심지어는 의아할 수도 있는 이 현상을 수궁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의 문제가 단순히 본질과 존재함의 ‘다름’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본질과 존재함의 ‘다름’은 철학적 탐구의 결과로 도달되는 결론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원초적으로 주어지는 근본적인 사태다. 본질인식 즉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존재함 파악 즉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출발점이다. 즉 ‘다름’의 사실 여부 자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주어진 문제는 본질과 존재함의 ‘다름’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텍스트는 본질과 존재함의 개념적 구별을 넘어서서 실제적 구별(distinctio realis)을 확립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존재함은 단순히 사유 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도 구별되는 존재의 두 구성원리로 확립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

*Later Medieval Philosophy*, ed. by N. Kretzmann, A. Kenny & J. Pinb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385-410쪽 참조.

7) De ente et essentia, cap. 4: Quidquid enim non est de intellectu essentiae vel quidditatis, hoc est adveniēns extra, et faciēns comp[ositionem] cum essentia; quia nulla essentia sine his quae sunt partes essentiae intelligi potest. Omnis autem essentia vel quidditas potest intelligi sine hoc quod aliquid intelligatur de esse suo: possum enim intelligere quid est homo vel phoenix, et tamen ignorare an esse habeat in rerum natura. Ergo patet quod esse est aliud ab essentia vel quidditate. (번역은 필자의 것)

이에 대한 입장들과 해석들은 관심사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이 텍스트의 출발점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소위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 텍스트는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만을 확보하며 실제적 구별은 이어지는 후속 논의에서 확립된다고 보는 오웬스와 위켈의 입장이다. (단, 이들은 후속논의의 어느 단계에서 실제적 구별이 확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다.) 다른 하나는 이 텍스트가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하여 실제적 구별을 확보하는 논증의 출발점이라는 앞의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들인데,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되 어떤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맥도날드(Scott Macdonald)는 위 텍스트의 출발점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통해 획득한 사물의 존재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서의 견해를 비판한다.<sup>8)</sup> 이에 반해 보빅(John Bobik)은 본질이 실재의 질서와 사유의 질서를 매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 텍스트는 사유의 질서에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실재질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한다.<sup>9)</sup>

이들이 오웬스와 위켈의 견해를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텍스트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으로 보는 오웬스와 위켈의 해석이 개념의 질서 혹은 사유의 질서(*ordo cognoscendi*)에 대한 논의로부터 실재의 질서 혹은 존재의 질서(*ordo essendi*)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 형이상학의 실존적·실재론적 근본 구도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텍스트에 대한 이들 해석의 차이는 텍스트에 대한 상이한 분석에 기인한다기보다 텍스트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그리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를 낳은 전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뒤에 살펴볼 것처럼, 실제적 구별의 확립은 신의 존재가 증명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오웬스의 주장은 형이상학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반적 설명과 충돌할 수도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형이상학에서 신은 학적 대상인 공통존재의 제1원인자로서 형이상학 탐구과정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다.<sup>10)</sup> 그런데 실제적 구별이 신의 존재 입증 이후에만 확립될 수 있다는 오웬스의 해석은 형이상학의 학적 대상인 공통존재의 구체적 내용 즉 ‘(공통)존재는 본질과 존재함의 복합’이라는 내용이 신의 존재에 의존해서만 확보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오웬스의 해석은 학적 대상인 공통존재로부터 그 원인자인 신의 존재로 나아가는 정상적 방향이 아니라 학적 탐구의 출발점에서 요구되는 공통존재의 내용을 학적 탐구의 결론에서야 말할 수 있는 신의 존재에 의해 보증받는다라는 불합리한 구도를 초래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과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은 본질-존재함 실제적 구별의 문제는 텍스트 자체의 정밀한 분석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검토와 조명을 요구한다. 출발점 혹은 전체에 대한 검토 역시 이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위 텍스트가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오웬스와 위켈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맥도날드와 보빅의 반론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

8) S. Macdonald, "The *Esse/Essence* Argument in Aquinas's *De ente et essentia*," *Journal of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157-172쪽.

9) J. Bobik, *Aquinas on Being and Essenc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5), 159-185쪽.

10) In de Trin., q.5, a.4 참조.

### 3.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으로 해석하는 오웬스와 위펠의 입장

위의 텍스트에 대한 대표적 해석방식이자 이후의 비판적 논쟁을 촉발시킨 해석은 이것을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Intellectus Essentiae argument, IE논증)으로 간주하는 오웬스에서 비롯되었다. 이 명칭 자체는 위 텍스트의 첫 문장 첫 구절인 “본질 혹은 무엇임의 이해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quidquid enim non est de intellectu essentiae vel quidditatis)”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간혹 이 텍스트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텍스트에 대한 한 가지 해석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sup>11)</sup> 이 해석의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텍스트가 명칭의 의미 그대로 본질에 대한 이해의 내용에 존재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본질-존재함의 다름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획득된 다름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오웬스는 이 논증의 출발점이 그 자체로서 고려된 혹은 절대적으로 고려된 본질 개념이며, 이에 의해서는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피력한다.<sup>12)</sup> 정의에 의해 표현되는 감각적 사물의 본질은 그 자체로 혹은 절대적으로 고려될 경우 존재함에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 어떤 존재함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개별자 안이나 사유 안에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실재의 질서나 앎의 질서에 존재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존재양태로부터 추상되어 이해된 본질의 내용 안에는 당연히 그 어떤 존재함도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질과 존재함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존재함에서 추상되어 그 자체로서 고려된 본질’은 존재함과 상관없이 ‘생각될’ 수는 있되, 존재함과 실제로 별개인 것처럼 제시하려 할 경우 전적으로 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3)</sup> 어떤 것을 존재(ens)이게 하는 것은 존재함이므로, 존재함에서 고립된 것은 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오웬스는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한 본질-존재함 구별은 유-종차의 구별이나 종적 본질-개별자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개념적 구별일 뿐 실제적 구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존재함이 본질에 대해 우유적(accidental)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 구별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14)</sup>

물론 이러한 오웬스의 주장은 위 텍스트의 해석에만 국한된 것이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위 텍스트만으로는 실제적 구별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일 뿐, 본질-존재함이 원래 개념적으로만 구별된다거나 실제적 구별을 위한 그 어떤 유효한 논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 구별은 시작 단계인 위 텍스트에서가 아니라 이후의 논증에 의해서 확보된다는 것이

11) 오웬스는 이 텍스트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검토하면서 ‘논리적 논증’(logical argument)이나 ‘피조물의 우연성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the contingency of creature) 등의 표현이 부적절한 반면,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intellectus essentiae argument)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J. Owens, “Quiddity and Real Distinction in St. Thomas Aquinas” *Mediaeval Studies* 27, 1965 2-7쪽 참조. 한편 Leo Sweeney는 IE논증의 대표적 텍스트로서 이 텍스트 이외에도 『명제집주해』 및 『진리에 관하여』의 텍스트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Leo Sweeney, 윗글, 105-109쪽 참조.

12) J. Owens, 윗글, 5-6쪽.

13) J. Owens, 윗글, 9쪽.

14) J. Owens, 윗글, 13-14쪽.

오웬스의 생각인데, 이를 위해 위의 텍스트를 시작으로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제4장에 개진된 일련의 논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4가지 논변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존재함은 본질에 대한 이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질과 구별된다. (위 텍스트의 논의)
- ② 만약 첫째 논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즉 본질과 존재함이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만 가능하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에게는 본질과 존재함이 동일할 수 없다.
- ③ 본질과 존재함이 동일한 것 즉 본질이 곧 존재함이기 때문에 존재함 그 자체인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의 존재의 원인으로서 실재해야만 한다.
- ④ 비물질적 실체에서 형상과 존재함의 관계는 수용자-피수용자의 관계로서 이는 가능태-현실태 관계다.

이 전체 논증을 보면서 오웬스는 시작단계인 ①에서는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만이 확립되며, 이들의 실제적 구별은 존재함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실제적인 본성으로 확립되는 부분 즉 신의 존재가 입증되는 ③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sup>15)</sup>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명과정 속에서 오웬스는 실제적 구별이 없는 개념적 구별 또는 실제적 구별을 수반하지 않은 개념적 구별은 불가능하며, 본질-존재함에 관한 이 두 구별 – 즉 개념적 구별과 실제적 구별 –이 서로 별개의 것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 단지 그는 본질에 대한 탐구로부터는 실제적 구별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라도 본질-존재함 실제적 구별의 근거는 본질이 아니라 존재함의 질서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6)</sup> 존재함 그 자체인 신의 존재는 이런 맥락에서 그가 발견한 근거인 셈이다.

한편 위펠(J. Wippel)은 ①의 논의 즉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 자체만으로는 본질-존재함의 실제적 구별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오웬스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sup>17)</sup> 그러나 실제적 구별의 확립을 위해 ③ 즉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본질이 곧 존재함인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논리적 가능성에 근거하여,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본질-존재함이 구별된다는 ②에서 이미 실제적 구별은 확보된다고 본다.<sup>18)</sup> ①의 논증이 ‘보다 큰 논증의 한 부분이자 출발점’이라는 오웬스의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이 ‘더 큰 논증’이 향하는 곳은 신의 존재를 말하는 ③이 아니라 본질-존재함의 구별을 말하는 ②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sup>19)</sup>

이에 대해 오웬스는 이러한 논리적 가정 즉 본질이 곧 존재함인 것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하다는 가정으로부터 본질-존재함의 실제적 구별을 결론짓는 것은 개념의 질서로부터 실재질

15) J. Owens, 원글, 21-22쪽.

16) J. Owens, 원글, 12쪽.

17) J. F. Wippel, “Metaphysic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quinas*, ed. N. Kretzmann and E. Stump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01쪽.

18) 이들 사이의 논쟁은 Owens, “Quiddity and Real Distinction in St. Thomas Aquinas,” *Mediaeval Studies* 27 (1965); “Stages and Distinction in *De Ente: A Rejoinder*,” *The Thomist* 45 (1981), 99-123쪽; “Aquinas's distinction at *De ente et essentia* 4” *Mediaeval Studies* 48 (1986), 119-123쪽; J. F. Wippel, “Aquinas's Route to the Real Distinction: A Note on *De ente et essentia*,” *The Thomist* 43 (1979), 279-295쪽; “A Reply to Fr. Owens” *Metaphysical Themes in thomas Aquinas*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4), 120-132쪽 참조. 이들의 논쟁과 논점은 Walter Patt, “Aquinas's Real Distinction and Some Interpretations” *New Scholasticism* 62 (1988), 16-24쪽에 비교적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9) J. F. Wippel, “Aquinas's Route to the Real Distinction” 286-7쪽, 각주 18.

서로 나아가려는 일종의 존재론적 증명의 한 예라고 비판하면서, 양자의 실제적 구별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존재함 자체가 현실적인 하나의 본성으로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sup>20)</sup> 본질이 곧 존재함인 존재가 논리적 가능성 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입증될 때에만, 그 이외의 모든 것 즉 존재함 자체가 아닌 것들에서 존재함과 존재함 아닌 것 즉 본질 사이의 구별이 실제적인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펠은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될 경우, 그러한 불가능성을 실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본질과 존재함이 동일한 존재가 하나 이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다른 모든 존재들에 있어서 본질과 존재함이 실제로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21)</sup>고 단호하게 말한다. ②에서 본질이 곧 존재함인 존재는 단지 가정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러한 가정이 곧 그 이외의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결론까지도 가정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위펠의 생각이다.<sup>22)</sup> ④의 주장 즉 본질-존재함 복합이 가능태-현실태 관계의 복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본질-존재함의 구별이 실제적임을 보여주는 것과 신의 존재 여부는 무관하다고 본다.<sup>23)</sup>

이들 사이의 논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패트(Patt)는 이들 사이의 견해 차이에는 ‘실제적 구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확보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고 진단한다.<sup>24)</sup> 위펠의 경우는 수용하는 자인 본질과 수용되는 것인 존재함 사이의 비동일성 확립을 실제적 구별의 구체적 내용으로 간주하는 반면, 오웬스는 존재함이 실재 안에서 독자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실재임을 보이는 것을 관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해석과 견해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보다 넓은 지평 위에서 이들의 해석이 지니는 적절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에 온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실제적 구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이 요구된다.

#### 4.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의 전제에 대한 맥도날드의 비판과 대안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하여 후속 논의를 통해 실제적 구별이 확립된다는 오웬스나 위펠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대략 다음 세 가지다. 하나는 실제적 구별이 후속논의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에 뛰어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속논의가 필요성에 반기를 들고 위 텍스트만으로 실제적 구별이 달성된다고 주장

20) J. Owens, “Stages and Distinction in *De Ente: A Rejoinder*,” 100쪽.

21) J. F. Wippel, “Aquinas's Route to the Real Distinction,” 289쪽.

22) 이에 대한 위펠의 해석과는 달리 스위니(L. Sweeney)는 본질이 곧 존재함인 신의 존재가 가설로만 제기된 상태에서는 비물질적 실체들에 있어서의 본질-존재함의 구별 역시 가설적인 것이며, 신의 존재가 입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의 구별이 실제적인 것으로 입증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L. Sweeney, “Existence/Essence in Thomas Aquinas's Early Writing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Association* 37 (1963), 116-117쪽.

23) J. F. Wippel, “Aquinas's Route to the Real Distinction,” 290-291쪽.

24) W. Patt, 위글, 특히 22쪽 참조.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이 개념적 구별로부터 출발한다는 이들의 전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맥도날드(S. Macdonald)의 비판이 그 하나의 예다.

맥도날드는 이 논증을 일컫기 위해 후대 해석자들 특히 오웬스가 사용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증”(intellectus essentiae argument, IE논증)이라는 명칭 자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신 존재함/본질 논증(Esse/Essence argument, EE논증)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sup>25)</sup> 그는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의 논증이 실제세계로부터 완전히 추상된 본질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오웬스 등의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IE논증’이라는 명칭의 출처이기도 한 “본질 혹은 무엇임에 대한 이해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이라는 텍스트의 첫 문장은 이 논증이 본질 개념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전체 논증이 본질 개념에 대한 탐구 즉 개념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 논증은 실제세계에 대한 관찰 즉 사물의 특성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이 맥도날드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공들여 드러내려는 것은 위 텍스트의 논증이 본질과 존재함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질과 존재함을 다룬다는 점이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의 전반부를 다시 보자.

본질 혹은 무엇임(quidditas)에 대한 이해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본질 외부에서 더해져서 본질과 복합을 이룬다. 왜냐하면 본질의 부분인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본질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6)</sup>

그에 의하면 이 텍스트의 첫 문장은 본질 개념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한 사물에 속하는 어떤 특성이 그 사물의 본질과 관계되는 일반적인 방식, 예를 들어 어떤 특성 A가 특정한 사물 x에 속하는 일반적 방식을 열거하고 있다.<sup>27)</sup> 다시 말해 첫 문장은 x에 속하는 A는 x의 ㉔본질 자체이든지, ㉕본질의 부분이든지, 아니면 ㉖외부에서 더해져 본질과 복합을 이루든지 하는 세 방식으로 x의 본질과 관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관계방식을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론되는 특성 A가 실제세계의 개별자 x에 실제로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성 A가 ㉔나 ㉕의 경우처럼 x의 본질적 특성인 경우는 x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A가 x에 속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A가 x의 본질적 특성이 아닌 경우는 x의 존재만으로 A가 x에 실제로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A가 x의 본질인지 본질의 부분인지 아니면 본질과 복합을 이루는 것인지를 묻는다는 것은 이미 A가 x안에 실제로 속해 있는 중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되는 특성 A가 x의 본질적 특성인 경우 – 예를 들어 ‘이성성’이 ‘인간’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경우 –와 달리 A가 x의 본질적 특성이 아닌 경우, 그 A가 x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제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한 경험적 지식에 의존한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특성 A는 사물의 존재함이며, 존재함은 본질에 속하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므로 맥도날드가 해석하는 것처럼 존재함과 본질과의 관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함이 그 사물에 속한다는 경험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연히 이 주장의 유효성은 사물의 존재함(esse)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형이상학의 근본문제와

25) S. Macdonald, 윗글 157쪽; 161-162쪽 참조.

26) De Ente et Essentia, cap. 4.

27) S. Macdonald, 윗글, 164-166쪽 참조.

연관되며,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aliquid est)는 경험적 지식 자체가 바로 존재함(est 즉 esse)이 그 사물에 속한다는 경험적 지식이라고 적절히 대답함으로써 요구되는 전제를 확보한다.<sup>28)</sup>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맥도날드는 사물에 속하는 특성으로서의 존재함이 그 사물에 속하는 방식을 그 사물의 본질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출발점이자 전체 줄거리라고 해석한다. 이 논증 전체는 개념으로서의 본질과 존재함의 관계가 아니라 실재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과 존재함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며, 개념으로서의 본질과 존재함 사이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그로부터 실재의 존재함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함과 그 사물의 본질과의 관계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그 결론 역시 개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과 존재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맥도날드는 ①과 ②의 논의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가능한 관계들에 대한 검토로 이해한다. 존재함이 본질의 부분일 수 있는가의 논의와 존재함이 본질 자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두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과 존재함은 다르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결론은 본질과 존재함의 이름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재의 존재자의 복합을 이루는 두 구성요소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이미 출발선 상에서 본질과 존재함 모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 안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과 ④의 논의는 본질과 존재함이 존재의 서로 구별되는 구성요소라는 앞의 결론에 따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논의로 간주된다.

이처럼 맥도날드의 견해는 토마스 아퀴나스 형이상학이 지니는 실재론적 성격을 환기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다.<sup>29)</sup> 물론 이 점이 그의 적극적 주장 즉 이 논증이 처음부터 사물의 존재함과 사물의 본질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의 논증적 유효성까지를 보증해주는 양지만, 적어도 오웬스와 위펠의 전제에 대한 그의 비판 즉 실재의 원리들에 대한 관계의 규명이 개념 혹은 사유의 질서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비판에 주목하게 하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 5. 보빅의 비판과 대안

보빅(J. Bobik) 역시 이 텍스트가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결과되는 본질-존재함의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하여 실제적 구별로 나아간다는 전제를 비판한다. 이 비판의 핵심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본질에 대한 보빅의 건전하고도 주목할 만한 해석 즉 본질이란 실재의 질서와 사유의 질서를 매개하는 원리라는 그의 통찰이 놓여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빅은 이 논증이 사유의 질서에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실재질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보빅은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 자체가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위험성, 특히 실제적 구별의 문제가 인식론적 문제인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위 텍스트의 후반부를 다시 보자.

28) S. Macdonald, *윗글*, 165쪽.

29) S. Macdonald, *윗글*, 170쪽 참조.

예를 들어, 나는 인간이나 불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이로부터 사물의 존재함은 그것의 본질 혹은 무엇임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sup>30)</sup>

전체 논의과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인용문은 마치 “내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실재에도 그렇다”라는 것처럼 즉 사유의 질서로부터 실재세계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된 한에서의 사물의 본질과 존재함의 차이가 실재에도 그렇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짐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본질-존재함 사이의 개념적 구별을 넘어서서 그들의 실제적 구별을 확립하는 논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해석들은 대체로 이런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보빅은 텍스트의 논증이 실재세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앎이 모종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 관계에 있다는 시각에 따라 전개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sup>31)</sup>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본질’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의 제1장에서 ‘본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몇 가지로 명확한 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질은 사물을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그 사물이 지닌 가지성의 원리라는 두 측면을 지닌다.<sup>32)</sup>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에 이해됨으로써 사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본질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재에 존재하는 것들이 인식 과정을 통해 사유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닌 본질 때문이며, 그로 인해 결과되는 앎의 내용은 모두 실재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은 실재세계와 그에 대한 앎이 관계 맺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sup>33)</sup>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별자들 안의 본질과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지성 안에서 표현된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 실재의 개별자들 안에 있는 본질은 개별자를 이러저러한 종에 속하게 하는 원리만이 아니라 개별자를 바로 그 개별자이게 하는 개별적 본질 혹은 개별적 실체 자체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사유 안에 표현되는 본질은 각 개별자들에게 공통적인 종적 본질로서 이러한 종적 본질에 대해 각각의 개별자가 지니는 개별적 고유성은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본질이다. 그런데 실재세계에 존재하는 각각의 실체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의 앎을 통해 지성이 사유 안에서 자신에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재의 실체들 즉 실재의 개별적 본질들 안에 있는 그 무엇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성에 의해 이해된 본질은 사유 안에 있다는 이유에서 실재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완전히 고립된 혹은 독립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유 안의 이해된 본질은 실재 내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실재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며, 실재 내의 개별자 각각에 본질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각이 지닌 무엇인가와 일치하는 것이다. 지성에 의해 이해된 본질이 서로 다른 다수에 공통적인 종적 본질이라고 할 때 이러한 종적 본질의 공통성은 단순히 다수

30) De ente et essentia, cap. 4.

31) J. Bobik, 윗 책, 167쪽.

32) De Ente et Essentia, cap. 1 참조: oportet quod essentia significet aliquid commune omnibus naturis, per quas diversa entia in diversis generibus et speciebus collocantur, ... Non enim res est intelligibilis, nisi per definitionem et essentiam suam ... Quidditatis vero nomen sumitur ex hoc quod per definitionem significatur; sed essentia dicitur secundum quod per eam et in ea ens habet esse.

33) J. Bobik, 윗 책, 168쪽.

에 공통적으로 술어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통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적 본질은 실제로 각 개별자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서로 다른 각각의 개별자들은 상호 간에 공통적인 무엇인가를 실제로 지니고 있고, 종적 본질은 바로 이러한 공통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수에 공통적으로 술어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의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고려된 본질 혹은 절대적으로 고려된 본질이란 실재의 실체 전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실재의 실체 안에 있는 무엇인가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무엇임(quid)의 물음을 통해 이해된 본질(quidditas)을 지시한다. 본질에 대한 이해란 단순히 실재로부터 추상되어 사유 안에서 개념화된 본질 개념을 대상으로 그 개념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란, 본질이 존재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가지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본질을 원리로 하는 실재와 그 본질에 대한 무엇임의 앎은 불완전하나마 유사함의 방식으로 일치 혹은 대응한다는 전제 위에, 이해된 본질의 내용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에 대응하는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실재에 대하여 그것의 본질이 이러저러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실재의 본질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용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내가 이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재의 인간이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로 취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내가 이러저러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물음은 제기되지 않는다.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원리와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의 우선성을 굳이 가려야만 한다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재의 원리로서의 본질은 그것을 본질로 하는 개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별자의 규정성 전체의 원리이다. 즉 개별자의 본질은 종적 원리이면서 동시에 개별자이게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실재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의 주체는 모두 개별자들이며 존재의 원리로서의 본질은 개별자 전체의 원리이지 개별자의 부분에 대한 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이 동시에 가지성의 원리로서 인간의 인식에 이해되는 한에서는 항상 개별자의 전체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종적 원리로서만 이해된다. 그러므로 본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이해된 본질이 실재의 실제적인 본질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오직 그렇게 이해된 내용만이 실재의 실제적인 본질일 뿐 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sup>34)</sup> 하지만 이 점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인간은 본질이라고 이해된 것 이상으로 사물의 본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즉 이해된 본질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id quo aliquid sit tale) 본질 전체를 철저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본질로 이해된 것 이외의 것을 본질에 대한 이해의 내용으로 이끌어 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질 이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실재의 개별자를 하나의 개별적 실체이게 하는 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외부의 것으로, 따라서 본질에 대해 우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본질 혹은 무엇임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이라는 논증의 첫 구절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 지성에 의해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알려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질이 우선 실재의 원리 즉 실제로 존재하는

34) 이러한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재의 실제적 원리로서의 본질(essentia)과 그 본질이 가지성의 원리로서 지성에 이해된 한에서의 본질(quidditas)을 구별한다. 위 각주 32의 원문 참조.

것들의 원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앞서 맥도날드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실제로 속하는 여러 특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앎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논의다.

또한 “인간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그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의 무엇임에 대한 물음과는 다른 방식 – 예를 들어 감각 경험 –에 의해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앎은 ‘인간이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앎의 내용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물음에 대한 앎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sup>35)</sup>

사물의 존재함은 이렇게 이해된 본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에 대해 우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된 본질은 곧 실재의 본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한, 즉 엄밀할 의미에서 본질에 대한 이해는 실재세계에 실재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이지 단순히 ‘무엇임’의 이해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존재함은 본질에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이란 오직 실재에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들에 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본질은 사실상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6)</sup> 이 점을 보익은 본질이 존재함을 수용하여 행사하는 적절한 주체(proper subject)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존재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이 본질이기 위해 지녀야 하는 필연적 조건이되, 여전히 그 자체로서 고려된 본질 즉 이해된 한에서의 본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해된 본질이 드러내는 실재의 본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존재함이 본질에 대한 이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실재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은 그 가지성의 내용에 그것의 존재함이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본질이 실재 안의 무엇인가와 일치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이러한 이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함은 사유 안에서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재에서도 본질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up>38)</sup>

## 6. 결론

이제까지 본질과 존재함의 실제적 구별에 관한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의 텍스트 해석, 특히 그것이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을 살펴보았다. 언급된 것처럼 이들 모두 이 텍스트와 그에 이어지는 일련의 논증과정에 의해 본질-존재함의 실제적 구별이 확립된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한다. 단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보되는지에 관해 이견을 보일 뿐이다. 이들의 이견 가운데 본론의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위 2장에서 인용된 문제의 텍스트가 개념적 구별에서 출발한다는 오웬스 및 위펠의 입장과,

35) J. Bobik, 위 책, 164쪽 참조.

36) 다만 이해된 본질은 그것이 지니는 실재와의 연관성에서 추상되어 사유 안에서 그 자체로서 사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구별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3 참조.

37) J. Bobik, 위 책, 166쪽.

38) J. Bobik. 위 책, 168-170쪽 참조.

바로 이 전제를 비판하는 맥도날드와 보빅이 과연 어떤 근거로 자신들의 비판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서로간의 상호비판적 시각과 이견들을 정리하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외형상 주어진 텍스트의 해석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제적 구별의 문제가 사실은 보다 거시적인 형이상학적 조망을 배경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4명의 해석자들 모두가 본질-존재함의 다름은 텍스트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위 텍스트를 포함하는 일련의 논증을 통해 실제적 구별이 확립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단순히 ‘다름’을 넘어서서 논증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실제적 구별’이라는 것이 이들 각각에게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르지만 아직 실제적 구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면, 그러면서도 그러한 실제적 구별의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면, 우선 이들이 ‘다름’에 더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실제적 구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적 구별의 정당화 문제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후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적 구별’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규정 뿐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엄격한 논증을 찾을 수는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원리에 입각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는 것은 의미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사물의 존재함은 그 본질과 다르다’는 그의 언명은 그의 생전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시조차 되지 않은 실제적 구별의 정당화 요구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것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말에 의해 그가 의미 혹은 의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 구별을 위한 논증 자체의 문제 역시 보다 폭넓고 다각적이면서도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장에서 제시한 실제적 구별 이해의 세 문제 가운데 나머지를, 즉 ‘실제적 구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실제적 구별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밝힐 필요도 있다. 자칫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문제의식을 도외시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실제적 구별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논증이 필요하고 또 왜 필요한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증의 추구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본질과 존재함이 실제로 다르다고 말하며, 양자의 다름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 대답을 통해 해결하려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Thomas Aquinas, *De Ente et Essentia*, in *Opuscula Philosophica*, ed., Raymundi M. Spiazzi, Marietti, 1954.
- \_\_\_\_\_, *In Librum Boetii de Trinitate Expositio*, in *Opuscula Theologica*, Vol II, ed., Raymundi M. spiazzi, Marietti, 1954.
- Etienne Gilson, *Elements of Christian Philosophy*, Doubleday & Company, Inc., 1959.
- Francis A. Cunnigham, *Essence and Existence in Thomism: a mental vs. the "real distinc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 John F. Wippel, "A Reply to Fr. Owens" *Metaphysical Themes in Thomas Aquinas*,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4, 120-132
- \_\_\_\_\_, "Aquinas's Route to the Real Distinction: A Note on *De ente et essentia*," *The Thomist* 43 (1979), 279-295.
- \_\_\_\_\_, "Essence and Existence" *Cambridge History of Later Medieval Philosophy*, ed. by N. Kretzmann, A. Kenny & J. Pinb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385-410.
- Joseph Bobik, *Aquinas on Being and Essenc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5.
- Joseph Owens, "Aquinas's distinction at *De ente et essentia* 4" *Mediaeval Studies* 48 (1986), 119-123.
- \_\_\_\_\_, "Quiddity and Real Distinction in St. Thomas Aquinas" *Mediaeval Studies* 27 (1965), 1-22.
- \_\_\_\_\_, "Stages and Distinction in *De Ente*: A Rejoinder," *The Thomist* 45 (1981), 99-123.
- Kevin J. Caster, "The Distinction Between Being and Essence according to Boethius, Avicenna, and William of Auvergne" *Modern Schoolman* 73 (1996), 309-332.
- Leo Sweeney, "Existence/Essence in Thomas Aquinas's Early Writing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Association*, 37 (1963), 97-131.
- Scott Macdonald, "The Esse/Essence Argument in Aquinas's *De ente et essentia*," *Journal of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157-172.
- Walter Patt, "Aquinas's Real Distinction and Some Interpretations" *New Scholasticism* 62 (1988).
- 장건익, 「토마스 아퀴나스의 *De Ente et Essentia* 4장에 나타난 본질-존재 구별 논증의 성격과 의미」 『가톨릭철학』 제7호 (2005), 386-419.

# Problem of the Real Distinction in *De Ente et Essentia* of St. Thomas Aquinas

— Some Interpretations —

Kyung-Jae, Lee

It is usually admitted that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the thought of St. Thomas Aquinas is his unique and peculiar understanding of being. The much disputed question, whether the essence of being is different from its existence [esse], is one of its crucial point of issues, which used to be referred as the problem of the real distinction. The main point of this problem is not to confirm the otherness itself, which is actually not the end but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but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the otherness. Is it real or rational? Or else, if neither, modal?

Most of the leading Thomists would assert it to be a real distinction. But, setting aside the big question on the exact meaning of the term 'real' in this case, it must be noted that all those who take the distinction as 'real' do not necessarily agree on how this could be established. They, for example, all agree that the well-known text of *De Ente et Essentia, caput 4* of St. Thomas could be seen as a firm ground for the real distinction between essence and existence. They, however, do not uniformly agree on the detailed reason why and how.

Their different – even incompatible, though they all are intended to be in favour of the real distinction – attitudes and interpretations of that famous text is the main concern of this article. Some, like J. Owens and J. F. Wippel, says the text should be interpreted as a so-called *Intellectus Essentiae* (IE) argument, in which the real distinction is claimed to be attained not directly from the given text but with the help of the further succeeding supplementary texts. It consequently results in saying that the text begins with the rational, not real, distinction. It is just this point that is stubbornly objected to by others, like S. Macdonald and J. Bobik.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thoughts in detail, they agreed with each other that the text could not be interpreted as starting with the rational distinction.

**Key Words:** Thomas Aquinas, real distinction, being, essence, existence (esse)